



#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 환경 · 생태와 결합된 교통 정책 필요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 쓴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변화는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기존의 승용차 위주의 도로 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교통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가 도입한 버스중앙전용차로와 BRT<sup>Bus Rapid Transit</sup>(간선급행버스) 시스템 등은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를 모델로 한 것이다.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교통, 생태 혁명으로 유명한 도시인 꾸리찌바시는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이 2001년에 쓴 《꿈의 도시 꾸리찌바》(녹색평론사)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있다.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 보고타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이하 《작은 실험...》)를 쓴 박 소장은 <대전 의제 21 추진협의회> 사무처장, <한밭레츠> 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시정연구단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수석연구원 및 교통정책자문관 등의 이력에서 드러나듯 다양한 영역에서 생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 운동을 펼쳐 왔다. 《작은 실험...》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연구와 현장 운동을 병행해 온 박 소장의 지난 10여년의 활동들을 정리,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세계 각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실험중인 보행자 위주의 대중교통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 교통과 생태가 결합된 대표적인 도시 보고타와 꾸리찌바

《작은 실험...》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도시를 개발하면서도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다.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대량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경전철, BRT 시스템 등의 대중교통 정책 사례와,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내셔널트러스트<sup>National Trust</sup>(국민 신탁) 운동, 레츠(지역 화폐 운동)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환경도시와 대중교통도시로 소개된 콜롬비아의 보고타와 브라질 꾸리찌바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해서 교통과 생태가 결합된 도시 정책으로 성공한 경우다. 보고타 시의 새로운 도시 정책을 주도한 페냐로사 시장은 기존의 서구식 개발 패러다임에 반기를 들고 인구 800만 도시인 보고타의 교통 문제 해법을 버스에서 찾아냈다. 보고타 시와 꾸리찌바 시는 정책 집행자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 환경 체제를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밖에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그로닝겐, 독일 슈투트가르트 같은 환경도시의 정책들도 자동차의 수를 억제하고 대

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 도입,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소신과 시민들의 참여가 결합되어 꾸준한 도전과 시행착오 끝에 정책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점이 이들의 공통점이다.

**한국, 저비용·대량 수송 인식 부족, 최근 변화에 주목**

박 소장은 《꿈의 도시 꾸리찌바》를 낸 이후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는 토건 국가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늘어난 교통 수요를 승용차와 도로의 확충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비용으로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죠. 그나마 최근엔 전국의 지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서울시의 교통 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 더 이상은 자가용으로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순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지하철은 투자비와 이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지자체가 떠안기엔 부담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엔 지하철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전철을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단다. 지난 10여 년간 논의는 무성했으나 민자 유치의 어려움과 공직자들의 시각 차이, 건설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저항과 자가용 이용자들의 반발 등이 대중교통 위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세계화 가속될수록 '세계적 생각과 지역적 행동' 중요**

박 소장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교통 정책을 환경과 연결시켜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작은 실험...》에서, 후대가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시민, 공무원, 기업 등이 연계해서 사람 우선의 교통정책을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박 소장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얻어낸 프로그램과 대안이 부재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 고정관념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외국의 도시들에서 ‘차 없는 거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체험했기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물론 외국 사례를 100퍼센트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카풀 시스템을 주민 투표로 정착시킨 보고타의 예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일단 그런 경험을 한두 차례 하다보면 조금씩 인식이 변할 것입니다.”

박 소장은 외국 여러 도시의 사례를 연구하고 방문하면서 환경운동가들의 행동 강령인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기’를 다시금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특히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지구정상회의’ WSSD=World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 시스템**

버스에 철도와 같은 운영개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첨단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대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국민 신탁) 운동**

지속적인 개발이나 도시화의 물결로부터 귀중한 자연과 역사적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기증을 받아 보존·관리·공개하는 운동.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일명 ‘리우+10 회의’)에 참가했을 때 지역 현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자국이기주의를 앞세워 공허한 목소리만 남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지역과 시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의 담론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나 중요성이 소외될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험들과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박 소장은 지속가능연구센터의 연구·저작 활동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국토·자연 전문위원 활동을 통해 생태, 환경과 관련한 대안 운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작은 실험...》과 같은 책이 “경제 불황을 건설 경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농촌 문제를 도시 안에서 풀 수 있는 ‘농심’ 회복, 도시 농업 프로그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취재\_김지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